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 오신 줄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종교와 가난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간직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8월 2일 (토) 제 149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동상이몽... 무고한 시민들만 계속 희생

## 포린어페어스, 이스라엘-하마스 간 세력 확장 전쟁 분석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7일 하마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진 12시간의 임시 정전이 끝나자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했고, 이스라엘도 곧바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공습을 가하면서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은 임시 정전이 끝난 후 유엔의 요청에 따라 정전을 4시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탱크가 가자에서 철수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구급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면 정전은 효력이 없다'며 정전 연장을 거부했다.

무슬림 극단세력인 하마스가 온갖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로켓포와 박격포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정부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태" 즉 가자 지구를 실질상 점령하면서도, 국제사회

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다시 말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중장기적 공격과 협상을 통해 결국은 팔레스타인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하마스를 무자비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굴복시켜 팔레스타인 점령을 더욱 더 굳건하게 하자는 의도지만,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제재 움직임까지 받고 있기에 전략적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제외교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는 현재 영월히 깨지지 않는 중동의 화약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How Hamas Won: Israel's Tactical Success and Strategic Failure).

수 있을 것으로 보기에 전망은 어둡다"고 보도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끝내 정전협상을 타개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을 떠나 이집트로 갔다.

하마스 지도자 칼레드 마살은 8년간 유지돼온 이스라엘의 국경 통제를 해제하기 전에는 휴전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마스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다"며 "가자지구 봉쇄를 풀어주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하마스가 협상력을 발휘하게 된 데는 로켓 공격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대한 국제적인 '보이콧' 움직임이 힘이 됐다.

미국 등 국제여론이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대표적 친이스라엘 성향의 테드 크루즈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에 대한 불매운동에 미 연방 정부까지 동원되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미국내 유대인 세력을 두렵게 하는 BDS 운동(Boycott(불매/불참), Divestment(투자중단), Sanctions(제재))이 정부 차원이 아닌 세계 시민들의 평화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바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지도 말고 이스라엘과 학술적, 문화적 교류도 하지 말며, 이스라엘에는 투자도 하지 말고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운동이다.

(3면으로 계속)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많은 희생을 낳고 있다. 한시간마다 1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위한 중재 노력의 고삐를 바짝 쥐었던 24일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됐다. 팔레스타인측 누적 사망자가 718명, 이스라엘 측이 34명에

달했다. 공습으로 일가족 6명이 몰렸던 24일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됐다. 팔레스타인측 누적 사망자가 718명, 이스라엘 측이 34명에

AP통신은 "전쟁을 곧바로 끝낼

이스라엘이 일방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가자 전쟁'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압도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작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단기적 전술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중, 장기적 전략에서는 이미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린어페어스는 '하마스는 어떻게 이겼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하마스의 전략적 목표는 이스라엘의 사상자를 늘리는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 '정상상태(normalcy)'라는 믿음을 깨뜨리는데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의 공습 사이렌은 파리 런던 뉴욕 등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스라엘인의 '환상'을 무너뜨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또 극도로 불균형적인 이스라엘과 가자의 인명 피해로 많은 서구인에게 '이스라엘이 가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도 하마스의 전략적 성과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정전을

## 2025년 인터넷이 직면할 4가지 위협!

### 퓨리서치, 설립 25주년 맞아 각 분야 전문가 수천명에게 질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난"은 자연적인 차원에서만 생각돼왔다. 즉 지진, 폭풍, 화산, 쓰나미 등 자연의 동선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간이 맞서야 하는 재난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재난들이 "인재"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재난들이 하나 둘씩 추가되기 시작했다. 핵폭탄, AIDS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통제와 제어의 어려움은 자연이 주는 "천재"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합물로 인식되어진다. 한마디로, 인터넷을 통한 국가 기반 시설물들의 통제와 제어가 만약 테러나 오작동으로 잘못된다면, 어떠한 자연 재난이 주는 손실들보다 심각할 수 있게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퓨리서치센터는 설립 25주년을 맞아 정보나 테크놀로지 분야 사업가, 애널리스트, 학자 및 기술전문가들에게 10년 후 인터넷은 어떤 모습일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도록 요청했다. 다수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도 존재한다는 의견이었다(Net Threats: Expertssaylibertyonlineischallengedbynation-statecrackdowns,surveillance,andpressuresofcommercializationoftheInternet).

## 세계 각국의 간섭·신뢰 사라져 인터넷 통제기업·정보홍수에 반발

위협 1. 세계 각국의 간섭  
"보안과 정치 통제를 유지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인터넷 차단과 필터링, 세분화, 발간화를 가중시킬 것이다."

발간화(balkanization), 즉 인터넷이 고립된 여러 개의 섬처럼 나뉘는 분화현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당주의 국가들이 앞장서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상징이어야 할 서구 국가들 역시 기본 규범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데이비스 앨런, 글로벌 인터넷 지배구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 겸 옹호자).

인터넷 감시...활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산업스파이 활동을 조장할 뿐 보안과는 별 상관 없다(크리스토퍼 월킨슨, 은퇴한 유럽연합(EU) 관리 겸 EURidu 이사).

인터넷 감시는 요즘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도 전 세계인의 의사소통에 여전히 주된 위협이 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2면

인터넷 확산이 종교 활동 감소 이유?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3면

방지일 칼럼  
"본대로 들은 대로"



16면

크리스천 리더십  
릭 워렌 목사의 역기스(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4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4년 9월 5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4년 9월 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4년 9월 8일(월) - 10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사슴나무골 텃밭 이야기(7): 인생은 잘 마쳐야 합니다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제가 처음 유학을 와서 살던 동네에서는 매년 마라톤 대회가 열려서 세계 각국의 유명한 마라톤 선수들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마라톤 출발전에는 수백명의 선수들이 조금 더 빨리 출발하려고 좋은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기싸움이 대단하였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있는 힘을 다해 박차고 뛰기 시작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여유있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서두르지 않고 달리기 시작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무려 42.195 Km(약 26mile)나 되는 장거리를 달려야 하는 관계로 체력 안배를 잘하고 끈기있게 페이스 조절을 잘하는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에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는 모습들을 보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보면 대개 마지막으로 갈수록 오히려 아껴두었던 힘을 발휘하며 결승점을 향해 고도의 집중력과 끈기로 경쟁 상대들을 물리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도망 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유주이자 구원교 교주인 유병연씨가 밭에서 시신이 다 썩은 채 발견되었고 40여일이 지나서 그 시신이 유씨임이 밝혀진 일로 한국은 다시 한번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 이단 중의 하나인 구원교 교단에 속한 신도들이 무려 십만여 명이나 된다고 해서 놀랐지만, 사라진 교주의 파편치한 사생활과 그 일가족의 사치스러운 삶이 속속 밝혀진 후에도 그들을 비호하고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종교를 가장한 사이버 이단의 영향력과 폐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절감하였습니다.

주위에 가족도 없이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밭에서 신체를 한탄하며 죽어갔을 유씨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니, 살아생전 그가 누렸던 모든 명성과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인지 그저 측은할 뿐이었습니다. 이단이란 말 자체가 설명해 주듯이 앞에 보이는 것은 비스듬해 보이지만, 뒤에 숨은 전혀 다른 꼬리가 실제 본 모습과 정체를 드러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단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가장 전형적인 이단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두사미의 문화입니다. 모두가 화려한 용을 꿈꾸며 용의 머리가 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간을 세뇌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비록 세속적 성공을 이룬 것 같아도 중국엔 뱀의 꼬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평생을 속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화려한 문을 열고 옥망과 출세의 길을 걸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어리석은 삶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길은 그 시작은 비록 미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끝이 창대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옥같은 산상수훈 설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이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2000여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넓고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씁니다. 그 문이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병연씨의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정말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니면, 천국의 영생이 보장되었다고 믿고, 남은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없는 물욕과 쾌락을 조금 더 누리며 명예와 지위나 탐하며 사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결핵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엎대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남은 인생의 경주를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인터넷 확산이 종교 활동 감소 이유?

WSJ, 인터넷 사용 증가와 종교 활동 감소 간 상관관계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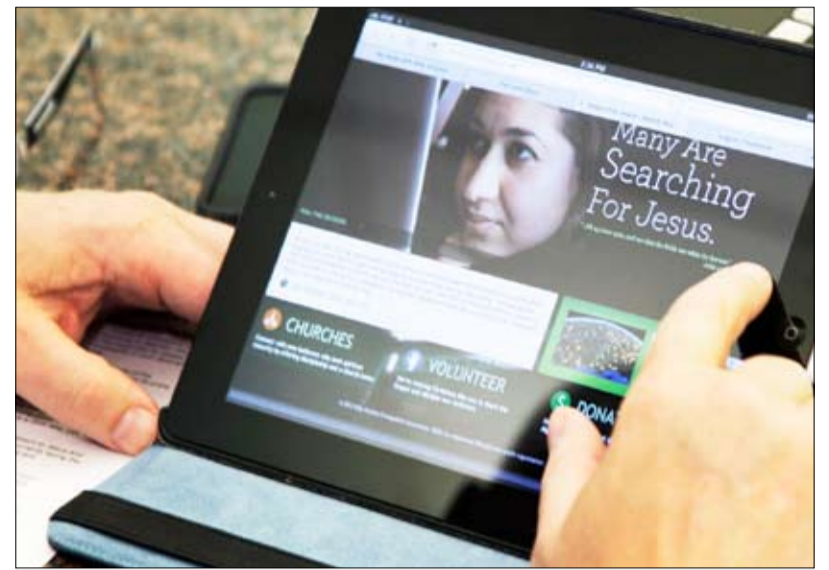
교회, 사원, 유대교 회당, 모스크는 삶의 다른 영역보다 느리게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많은 종교 기관들이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받아들이고 있다. 은둔을 통해 영성훈련(관상)을 강조하는 카르멜회 수녀들마저 페이스북을 통해 기도 요청을 받고, 일부 목회자들은 신자들이 트위터로 설교 내용을 생중계하도록 장려한다. 수많은 종교 공동체의 선교와 봉사활동은 온라인에서도 진행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터넷이 종교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최근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인터넷 사용 증가와 종교 활동 감소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앨런다우니올린대학 공학 교수가 시카고대학교 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구 중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1990년 8%였던 것에서 2010년 18%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년새 2,500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터넷의 확산과 종교 활동 간의 반비례 현상에 대한 보도(Is Google Replacing God?: There are some things that the all-knowing Internet can't provide), 즉 인터넷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신앙의 차원을 역설적으로 옹호하는 보도를 했다.

다우니 교수는 교육,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적 가정교육 중 어떤 것이 이 현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 결과 이 추세의 상당 부분이 설명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가설은 무엇일까? 인터넷 사용의 증가다. 1980년대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

기회비용인 걸까? 마치 손으로 쓴 편지가 구식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는 미래의 종교기관에 어떤 의미일까? 인터넷 사용이 종교인이 줄어드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연구는 의도치 않은 인터넷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다우니 교수가 검토하지 않은 사회정치적, 경제적



음이 무엇이든 간에 종교 관행은 보통 온라인 세계가 만들어내는 것과는 정반대의 특성이 있다. 인터넷이 즉시성과 공개를 특징으로 한다. 종교는 인내와 신중함이라는 특징이 있다. 과거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을 통해 지위를 보여주는 여러 수단에 접근할 수 있게 되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다음의 둘 중 무엇인가? 하나님? 아니면 구글? 인터넷으로 공과금을 내거나 지구 반대쪽에 메일을 보낼 때마다 짜릿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경험들이 디지털화되어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시대다. 그런 시대에 모든 경험, 특히 신념과 같은 개인적 경험까지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

인터넷=즉시성과 공개 vs. 종교=인내와 신중함

인터넷 질문 많지만 영적문제 답은 불가능해져

에 적어도 2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소요하며 25%가 일주일에 7시간 이상을 소요했다. 다우니 교수는 종교 교인이 25%나 감소한 것은 이 새로운 습관의 영향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우니 교수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제 사실들을 연두에 두고 진행됐다. 먼저 이 조사는 바로 '종교인'을 조사했다. 이는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형태의 종교적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미국 성인의 대다수는 신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그러나 그 숫자마저도 감소했다)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종교기관을 찾는 사람의 수는 훨씬 적다. 또 한 가지 다우니 교수의 연구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측정한다는 점이다. 그는 인터넷 사용이 종교인의 감소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으며 인터넷 사용이 종교인 감소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시한다. 종교 활동은 디지털 세계의 또 다른

요인이 종교인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무신론자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퍼진 것 등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들도 있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수 없이 많다는 것은 성경공부나 예배 등 종교 공동체에서 얼굴을 맞대고 하는 활동에 시간을 덜 투자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가상 공동체는 교회에 직접 가는 것과 비슷한 소속감을 제공하면서도 훨씬 더 편리하다. 같은 생각을 공유한 공동체의 일부를 느끼기 위해 집을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온라인 서명 운동에 서명을 한 것만으로 시민 활동을 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처럼 직접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 대신 온라인 공동체의 편리함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정보 접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종교 의식에 반대되는 습관을 키운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알고 싶을 경우, 인터넷은 단 한번의 "클릭"으로 개인의 필요에 맞춘 답을 즉시(instant) 제공해 준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개인적 믿

고, 그것을 보는 전 세계적 관중들이 생겨남에 따라, 특히 젊은이들에게 종교적 형식이 그 매력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1950년대의 조직인은 교회에 감으로써 어느 정도 자신의 지위를 인식했는지 모르지만 21세기의 디지털 위주인은 트위터 팔로워 숫자로 자기 지위를 가늠한다.

이는 미래의 종교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개선됐기 때문에 종교인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 정보혁명을 통해 합리성이 강화된 증거라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보라. 우리가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의 온라인 경험은 편리하고 놀랄 만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확고적이고 성과중심적으로 변해간다. 또 이 경험들이 우리의 영혼 상태가 아닌, 우리 정보의 수익성에 관심이 있는 페이스북, 구글 같은 소수의 기술적 중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종교기관이 답해 주던 질문들을 인터넷에 물어보아도 데이터가 말해줄 수 없는 답에는 점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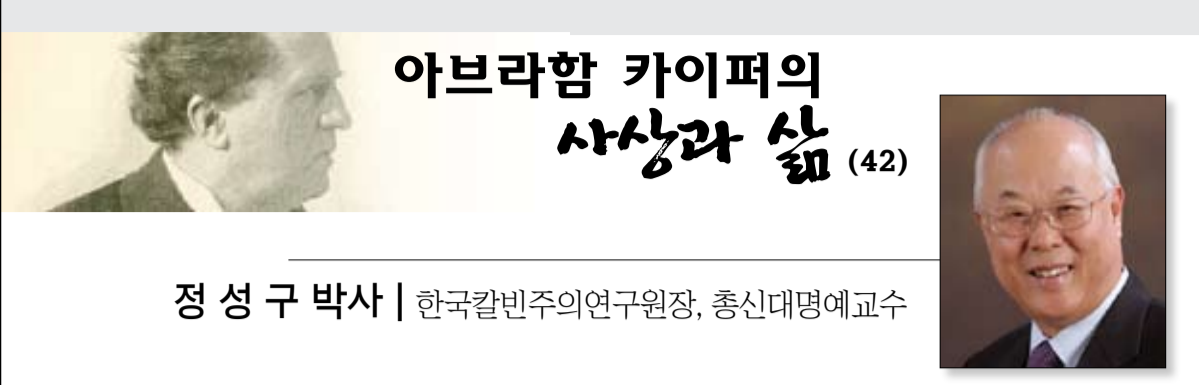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university name, founding year (1986), website (www.midwest.edu), and a list of degree programs (ESL, Bachelor, Master, Doctoral) and study options.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42)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 사회의 개혁자 카이퍼

카이퍼는 칼빈주의적 신학자이고 정치가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조국 화란의 사회를 개혁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의 한결같은 주장은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당 울타리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가 신학자, 목사에서 기독교 정치가로서 임명한 것 자체가 삶의 전부(The Totality of life)를 하나님께 드러야 한다는 에타는 가슴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숙련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

므로 심히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또한 1870년부터 시작된 실업자 문제는 커다란

###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위치 환경 변화 자유방임시대 무책임한 정부로 사회 경제 불안



#### 카이퍼 시대의 사회적 이슈

카이퍼 시대는 불란서 혁명으로 말미암은 정치적 영향이 유럽 각 나라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또 18세기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산업혁명이 전 유럽을 들끓게 했다. 화란도 예외가 아니어서 나라 전체에 구조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화란에서 산업혁명이 적응하지 못하는

고 공장지역으로 몰려가게 되니 삶의 정황이 바뀌고, 위험한 노동 조건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거기가 노동시간은 업주들 마음대로 늘리고 임금은 형편없이 낮았다. 그런 와중에 공장지역에는 신흥부자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도시로, 공장으로 공장으로, 벌떼처럼 몰려다녔다. 노동자의 수입은 늘어나거나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1880년대 화란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였는데 더군다나 보편이 되지 않아서 직업을 잃으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는 노동자들이 폭력사태가 심심찮게 일어나서 지방정부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환경 중에서 사회주의 정당, 노동당들은 노동자들을 부추기어 시위를 일으키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불란서 혁명과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불법과 폭력이 일상화 되었다. 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주는

듯이 보여지는 사회주의 정당이나 노동당 정치인들에게 기대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아브라함 카이퍼와 일생동안 정적이 되었던 하원의원 프롤스트라(P. J. Troelstra)가 있었다. 그는 이른바 사회주의 신념을 가진 진보파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1860년에 나서 1930까지 일하던 이른바 사회 민주당(Sociaal-Democratisch Partij)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흐로닝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류베르덴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사회민주당원이 되었다. 그는 사회주의 사상을 확산시키고 노동자 농민을 선동시키는

만에 하나 카이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유럽 특히 화란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국가로 전락할 뻔했다.

1870년대의 또 다른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정부를 아주 곤혹스럽게 할 뿐 아니라 입법부마저도 난처하게 만들었다. 산업혁명이 점점 확산되어가던 유럽에서는, 사회나 경제적인 문제가 희망과 꿈을 주기는 커녕 눈물과 땀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당시는 자유방임시대였으므로 정부는 사회 경제 행위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처럼 여겼다.

산업의 무한 경쟁이 거의 모든 나라에 일상이 되었다. 그런 중에 고용주들은 임금을 작게 주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는 등 노동착취를 해도 국가가 통제 능력이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노동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 노동자들이 재해를 입거나 퇴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보험이나 근속수당을 주는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은 손을 놓고 아무런 대안을 세울 수 없는 이른바 정치 부재의 시대였다.

사명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의회민주주의자요 철저한 칼빈주의적 신학과 신앙을 가진 카이퍼와는 정치적 노선이 처음부터 달랐다.

프롤스트라라는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을 전파하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주의적인 진보파였다. 그래서 그는 불란서의 혁명주의 사상과 마르크스주의적 혁명 사상을 결합해서 국가와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다. 카이퍼와 프롤스트라라는 그의 생애가 끝나는 순간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현대자유주의 사상과 거대한 대결장에 섰다.

당연히 자유주의자들과 보수당은 이런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치적 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난국에서는 카이퍼와 같이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진 열린 정치 지도자가 필요했다. 카이퍼는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분별하게 파악하고,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갔다. (다음호에 계속)

### 가정사역 칼럼



### 외도를 방지하려면...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 외도의 원인과 남편 아내의 필요,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외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 견고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다. 외도에 빠져있던 커플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을 외도로 이끄는 주된 원인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인 것이

확인되었다. 남녀 모두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비판 없이 자신들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을 원했다. 그리고 배우자로 하여금 당신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했다. 결국, 서로 간에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언제나 자신의 업무나 자녀들보다 배우자와 우정을 쌓아가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이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성적 만족감이 충족

되도록 하는 것이다. 충족되지 않은 성관계는 남성으로 하여금 부정을 저지르도록 하는 위험에 처하게 한다. 알렉산드라 페니는 '어떻게 당신의 남자가 일부일처 제도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How to Keep your Man Monogamous)에서, 여성들이 배우자의 성적 욕구나 일반적 욕구에 대해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5가지 실수에 대해 언급했는데 "여자들은 성생활을 하는 동안에 충분하리만큼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자신을 더 종교적인 여성이라고 대답한 여성일수록 자신의 결혼과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고, 종교적인 여성들이 남편과 성에 대해 더 자유롭게 토론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한다. 이 연구 보고에 의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성적으로 억압되어 살고 덜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성적으로 덜 만족스럽게 산다는 고정 관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셋째로, 성적이지 않은 접촉

(nonsexual affection)을 하는 것이다. 보통은 남자가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갈망하는 만큼 여성은 성 자체보다는 애정을 갈망한다. 그래서 부부간의 친밀함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하루에 네 번 정도 애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는 순간, 일터로 가기 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직후,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표현을 하는 것이다 넷째로, 취미활동의 짝이 되는 것이다. 남성이 외도에 빠지는 일 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다.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일과 다른 것로부터 시간을 내야 한다. 그리고 취미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각자 즐기는 시간과 함께 여가시간의 많은 부분을 부부가 함

께 즐길 수 있는 활동에 투자하도록 하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알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 하며 유용한 여러 자료들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로맨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부데이트를 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견고한 결혼생활을 위해 높은 위험 상황을 피하고, 개인의 취약점을 찾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부가 결혼에 대한 헌신을 확고히 하고, 외도가 발생했을 때 대가를 치루며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여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유용한 여러 자료들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성 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주관하는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시편127:1). 이메일: familykum@gmail.com

## 2014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13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 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2명: 각\$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 2페이지 이하)  
3.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추천서 2부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14년 7월 30일  
**수여자 발표** 2014년 8월 20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NLChicago.org  
NewLife@NLChicago.org  
T. 847-359-5200 F. 847-359-8409

## 부목사님 청빙

저희 뉴욕장대현 교회에서는 소명 받으신 신실한 목회자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M.Div)목회자 중 미국 합동 개혁 장로회(ARPC)교단 소속이거나 본교단 가입 가능한 분  
- 목회 3년 이상 하신분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거나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이력서(가족 사진 첨부) 1부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1부  
- 목회 비전 및 소명서 1부 - 신학 대학원 졸업 증명서 1부  
- 목사 안수 증명서 1부 - 목회자 추천서 2부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2편

**제출처**  
E-mail 주소: ktpchurch@aol.com  
우편주소: 39-15 Woodside Ave. Woodside NY 11377

**제출기간**  
2014년 8월 20일 까지

**기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분은 개별 통보합니다.  
문의사항: 지덕일 장로(646-552-4231)

**뉴욕 장대현 교회 청빙위원회**  
www.jdchurch.org

# 창조과학 칼럼 (198)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다 그의 손에 (6) 과학과 성경

창도 실험도 해보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에 관한 지식이다. 즉, 현재 관찰되는 역사적 인 결과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과 과정을 설명하는 역사적인 지식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사(natural history)

과학 내용만 성경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즉 수십억 년과 진화론이 수천 년의 역사를 말하는 성경과 충돌하는 것이다. 진화론자와 창조론자가 실험과학에 대해서는 충돌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과학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충돌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느 체계가 증거들과 잘 맞으며 과학 법칙들과 잘 어울리고 논리적인지 확인해 보면 된다.

과거를 이해하는 데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증인이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현재만을 다루는 실험과학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도 그 지식은 증인의 증언에 비하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DNA 증거가 있어도 범인이 아니라 결론을 내기도 하고, 반대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범인으로 몰려 무고하게 감옥에 갖게 되는 예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므로 지나간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증거보다 참된 증인의 역할이 극히 중요하다. 역사과학 연구에는 증인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증인들이 가능한가?

창조론에는 하나님이란 증인이 있고 그분의 증언인 성경이 있다. 그러나 진화론에는 그렇게 오랜 과거에 살았던 사람도 없었고 진화를 보았다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증인의 말인 성경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증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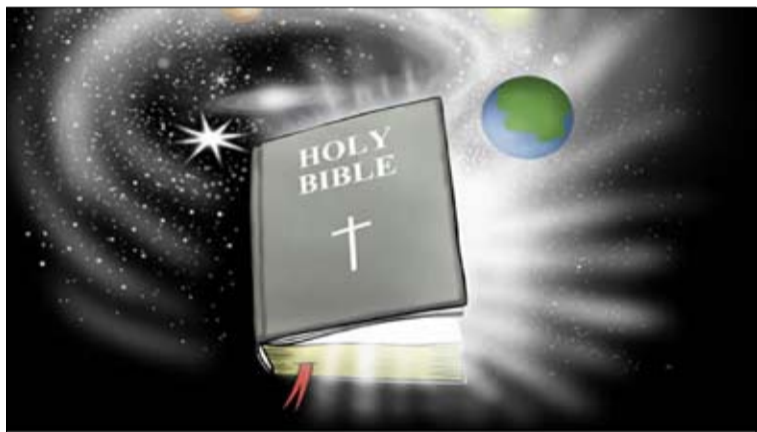
프랑스의 사상가 주버트(Joseph Joubert, 1754-1824)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과학)의 임무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과 진리를 말해주는 성경이 만난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적인 발견과 과학의 발전이 성경적 사고에서 가능했고 교과서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성경의 창조와 창조자를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이 요구하는 3절과 6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던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3, 6).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 진화론과 창조론, 실험과학에선 충돌 않지만 역사과학에선 정면충돌 성경적 창조는 과학의 기초이며 조화 이뤄 열역학 제 1법칙이 설명

일 수 있다. 과학(science)이라는 말은 원래 지식(knowledge)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scientia에서 왔다. 과거에는 모든 종류의 체계적인 지식이 과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철학(philosophy)이란 단어와도 구별되지 않고 쓰였다. 하지만 자연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현대의 '과학'이란 단어는 그 의미가 변해서 무신론적이고 물질적인 지식만 과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과학'과 함께 자주 쓰는 '기술(technology)'은 과학적 발견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일하게 정확무오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증언이며 역사과학의 근간이다.

이다. 이런 성격의 지식을 역사과학(historical science) 혹은 기원과학(origin science)이라고 부른다. 후자의 경우에는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하므로 추측과 상상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관찰되지 않은 수십억 년의 역사를 사실로 믿는 진화론이다. 그런데 현재의 과학 교과서에는 이 두 가지 지식을 교묘하게 섞어서 모두 다 '사실'로 가르쳐 과학의 목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외면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과학과 성경은 충돌하는가?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 현상이 성경과 모순되지 않듯이, 진정한 과학인 실험과학과 성경은 충돌하지 않는다. 다만 과학 교과서의 역사

다. 그 사람들이 과학 지식이나 논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증명될 수 없는 과거의 역사를 각각 다른 가정 혹은 믿음으로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가정과 믿음이 충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역사과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데 어떤 믿음이 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원과 과거를 설명하는 믿음의 체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성경대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성경대로 역사를 진행해 왔다는 믿음이다. 다른 하나는 수백억 혹은 수십억 년 동안 물질들이 우연히 화학 반응을 통해 진화되어왔다는 믿음이다. 이 두 믿음 체계는 증명을 해보일 수는 없지만 확인해 보는

을 살펴보면 진화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인의 말인 성경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성경적 창조는 과학의 기초다. 물질의 근원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 무에서 창조되어야 한다. 우주의 법칙인 열역학 제 1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저절로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의 기적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의 법칙들도 일정할 것이다. 그래서 관찰된 법칙을 통해 미래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무작위로 움직인다는 믿음을 가지면 과학은 불가능하다.

수천년 전의 창조에서 시작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증언이다. 현재 존재하는 동식물과 인류의 문명인 증거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참된 역사일 뿐 아니라 과학의 기초이며 진짜 과학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그 증언이 사실이 기 때문이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요3:11).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 주인 없는 성전

연로하신 아버님과 똘고 가족들도 만나러 일년에 한 번, 여름 방학이면 한국을 방문했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올해는 굳이 한국을 갈 이유도 없어서 자매끼리 다같이 유럽에 가자는 언니의 제안에 다섯이나 되는 언니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했다. 총무여행을 맡은 언니의 제안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가지 말고 독일에서 사는 사촌 오빠가 계획해 준대로 일정을 따라가자고 해서 우리는 오빠가 사는 뮌헨으로 갔다. 오빠는 은퇴 후 운전 전을 안한지 십년이 되어서 나홀로 정도는 아집이면 오빠와 같이 기차를 타고 뮌헨 시내에 나가서 하루 종일을 걸어다녔다.

짧은 여행 중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 어느 곳에 가든 성당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머물던 호텔이 있는 작은 마을에도 한 복판에 성당이 예쁘게 자리잡고 있었고, 뮌헨 시내에도, 다른 도시에도 가는 곳마다 고풍스런 성당들이 있었다. 더운 날씨에 걸기에 지칠 만하면 곳곳에 성당이 있어서 시원한 성당 안에 들어가 잠시 쉴 수 있는 것이 고맙기도 했다. 예수님의 고난과 승천 등 예술작품 수준의 그림들이 많아서 주님을 묵상하기에 좋았다. 거의 대부분의 성당 안에는 관광객들이 내부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미사를 드리는 곳은 많지 않았다. 독일 남부 지방은 아직 상당히 종교적이라는 오빠의 설명이 있었지만 평일에 들어가 본 성당은 예배 장소보다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둘러보는 장소 같았다.

마침 우리가 가 있던 주간에 승천기념일이었는데 남부지방 전체가 승천기념일을 연휴로 지킨다고 했다. 주일 아침이 되니 정말 빵 하나도 사먹을 곳이 없으니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아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도 종교적인 것에 놀랄 정도였다. 주일에도 가게를 닫는 사람들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상업화된 미국보다는 예수님 승천일이라고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독일이 훨씬 경건해보였지만 왠지 외형만 갖춘 종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예배가 사라진 멋있는 건축양식과 웅장한 건물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외형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내용을 갖춘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주님을 모른 채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신교 교회들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우리는 차가 없어서 개신교 교회를 갈 수가 없었고 주일에 호텔직원에게 물어 예배를 드리려고 동네 교회를 찾자 가니 교회 문은 굳게 닫히고 예배시간 안 내판도 없고 도대체 몇 시에 문을 여는지 알 수도 없어서 교회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호텔로 돌아와서 인터넷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려야 했다.

한국교회들이 그동안 건축에 많은 힘을 쏟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한국에서도 미국 이민교회에서도 들려온다. 어쩌면 교회들이 실속 없는 갈치레에 마음 쓰며 살아 온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은 것은 아무리 웅장한 교회 건물도 그 안에 있어야 할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없다면 그 건물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내용 없는 허울만 좋은 기독교, 변화된 사람들을 생산해 내지 못하는 종교화된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먼저 나 자신부터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메일: lpyun@apu.edu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목회서신

태도(Attitude)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우리의 인생에는 태어난 환경, 즉 부모, 가족, 조국, 혹은 인종 등등,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입니다. 태도는 각 사람이 책임지고 해야 할 선택이며 돈으로 살 수도, 선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태도에 따라 그의 인생이 높이 비상할 수도 있고 한순간 급히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척 스윈돌(Chuck Swindoll) 목사님은 그의 책 "태도"에서 태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태도는 과거의 사건들, 교육, 돈, 환경, 실패, 성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 혹은 행동... 외모, 은사, 재능보다 더 중요하다." 야구의 레전드라 불리는 요기 베라(Yogi Berra)도 경기와 인생의 승패를 비교하며 "인생은 야구와 비슷하다. 95%가

정신적인 태도이며 나머지 5%가 육체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태도(attitude)는 어떤 특별한 기술(skill)이나 습성(aptitude)보다 더 중요하고, 높은 IQ나 명문대학 졸업장보다도, 돈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보다 더 큰 자산입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태도가 바르면 결국에는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가 우리 인생의 고

도(altitude) 즉 성취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오래 전에 읽었던 "Altitude" (고도)라는 책에서 저자는 고도(altitude)가 높을수록 태도(attitude)가 낮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높은 고지에 올라갈수록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여야 성공한 후에도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8000미터 16좌를 완등한 산악인은 산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무술에 고수일수록 절대 하수를 하찮게 대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석학은 낮은 자세로 끝없이 연구하고 배움의 자리에 있기에 놀라운 업적을 이룹니다. 겸손한 태도는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어 비상하게 하지만, 거만한 태도는 인생의 날개를 꺾고 추락하게 합니다.

성경 인물 중 '태도' 하면 사울왕과 다윗왕이 떠오릅니다. 사울왕의 태도는 두려움과 거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인 꼴리앗은 두려워했

지만 오히려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는 않았기에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결국 그의 인생을 추락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며 잠시 그를 두려워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삶에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기 멋대로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 받았을 때 자처하게 회개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해주셨으며 다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태도가 사울에게 인생 실패라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면 바른 태도가 다윗에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 성공이라는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좀 솔직히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승패는 태도에 달려 있습

니다. 아무리 특별한 영적 체험 (spiritual experience)과 영적 은사 (spiritual gift)가 있어도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훈련이나 영성훈련, 그 외에 어떤 훈련이든지, 훈련을 받는 것보다 그 훈련을 받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성숙하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이려면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상에 높이 올라갈수록, 귀하게 쓰임을 받을수록, 크게 성공할수록,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을수록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 내 인생의 행복, 그리고 내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인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성 서부지방회 정기 지방회가 끝나고 지방회 소속 관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회장에 김제임스 목사 선출  
여성 미주총회 제12회 서부지방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여성) 미주총회 제12회 서부지방회가 지난 22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토론토에

위치한 워싱턴포드원교회(담임 김제임스 목사)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됐다.

제 12회를 맞는 서부지방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미주총회 소속으로 서부지역에 총 20여교회가 있으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단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제 12회 서부지방회에서는 효과적 개인교회 지원방안과 회원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아울러 교회연합성회 및 연합 사업에도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 부흥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방회에서 선출된 신임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방회장: 김제임스 목사(워싱턴포드원교회) △부회장: 강양규 목사(남가주 새연교회) △서기 임근영 목사(라크렌타 새생명교회) △회계 손민호 목사(건강한교회). (기사제공: 여성 미주총회 서부지방회)



세계기독언론포럼 주최 이단대책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이인규 권사가 강의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인 6명중 1명 이단" 세이연, 이인규 권사 초청 이단대책세미나

이인규 권사초청 이단대책 세미나가 지난 24일 오후 7시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감독)에서 열렸다. 세계이단대책연구회(세이연) 대표 한선희 목사의 사회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인규 권사(대림가리교회)는 "한국의 경우 2012년 센서스를 보면 기독교인이 850만 명으로

집계돼 있다. 그러나 종교관에 이단 종교를 기록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단에 속한 이들이 종교를 밝힐 때 기독교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한국의 기독교(개신교)인은 700만 명이며 이단은 최소 1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개신교인 6명중

1명은 이단"이라고 언급했다. 이 권사는 "현재 한국은 세계 최대의 이단산출국이며 미국과 호주에 한국산 이단들이 진출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단 중 활발한 단체는 안상홍증인회(안증인회), 구원파, 신천지다. 안증인회의 전도방법은 가정방문이며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가지고 다니며 설문조사기관으로 위장해 침투한다. 구원파는 성경세미나와 성경수양회로, 신천지는 성경공부라는 방법으로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인규 권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자들을 상처 입은 자와 영적인 문제, 가정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자들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단은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단침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박준호 기자)



제6회 PPFF영화제가 리틀도쿄에 위치한 JACCC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영화제시상식을 마친후 전스텝들이 무대에서 커튼콜 하는 모습

제6회 PPFF 14개국서 총110편 출품  
베스트영화상 Son of God, 베스트미션상 Who are the Chinese

제6회 환태평양기독교영화제(Pan Pacific Film Festival, PPFF)가 24일부터 26일까지 LA 리틀도쿄에 위치한 JACCC(Japanese American Cultural & Community Center)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인사역단체인 GMIT가 주최한 이번 기독교 영화제는 많은 주류사회의 후원에 힘입어 "기독교 아카데미"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제로 발전했다. 사무총장이

자 CEO인 켄 안 선교사는 "이번 영화제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돼 영화제가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50여명의 무료 봉사자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해 영화제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영화제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에는 Best Short 다큐상에 "Noah and the Last Days", Best Feature 다큐상에 "The Exodus", 베스트디렉터상에 Ted Baehr이 차지했고,

기독교영화제의 꽃인 베스트미션상에는 "Who are the Chinese?"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한국에서 온 '시선'의 이장호 감독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장호 감독은 '별들의 고향', '외인구단' 등으로 70-80년대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이다.

이장호 감독은 "크리스천 영화가 한국에서는 굶주려있는데 이곳에는 넘치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에서 기독교영화를 위해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기독교영화가 많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됐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번 LA에서 열린 영화제에는 37편의 기독교 영화들이 무료로 상영됐으며, 40여종의 패션을 비롯해 헬리우드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 등과 그 외 많은 부스들이 설치돼 영화제의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상자들이 개인 스케줄 관계로 불참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전 세계 14개국에서 총 110편이 출품됐으며 32편이 영화제에서 상영됐고 4편의 프리미어 상영이 있었다. 자세한 수상작 내용은 를 참고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밀알선교단 창단 35주년 기념 새 리더십 취임 감사예배가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왼쪽부터 남가주 이사장 남성수 목사, 미주총회장 이영선 목사, 미주이사장 김영길 목사가 각각 취임인사를 한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창단35주년 밀알선교단, 새 리더십 취임  
김영길 미주이사장, 남성수 남가주이사장, 이영선 미주총회장

밀알선교단 창단 35주년 기념 및 새로운 리더십 취임 감사예배가 25일 오후 7시30분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김영길 목사가 미주밀알 이사장으로, 남성수 목사(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가 남가주밀알 이사장으로 그리고 이영선 목사(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가 미주밀알 총단장으로 취임했

다. 김영길 미주이사장은 "미주이사장을 다시하게 됐다. 밀알의 특징은 가족과 같은 태생적 본질이다. 세계 이곳저곳에 퍼져있는 100여개 밀알 공동체를 보존하고 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다. 나 역시 밀알 총하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대로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남성수 남가주밀알 이사장은 "35주년 맞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사장 자리는 바닥에서 섬기는 자리다. 최선을 다해 섬

기겠다"고 말했다. 이영선 미주밀알 총 단장은 "밀알사역을 15년째 해왔다. 15년을 돌아보니 그야말로 은혜이다. 밀알사역을 제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맡겨주신 소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 밀알선교단이 35년이 됐다. 앞으로 35년 갈 수 있도록 정경대리역할 잘 감당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호 목사(뉴저지밀알 단장)의 사회와 남가주밀알 LA총연합회 찬양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김한오 목사(베델한인교회),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민종기 목사(총현선교회), 유진소 목사(ANC온누리교회)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이재철 목사(필라델피아 밀알 단장) 기도, 남가주밀알 수어찬양단이 찬양했다.

이어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담임)가 '베데사 연못'(요5: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미주밀알선교단 이사장,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사장, 미주밀알선교단 총단장 취임식을 가졌으며 이재서 목사(세계밀알연합 총재)가 격려사를, OC사랑의교실 팀이 특송을 했다.

이날 예배는 이근민 목사(세계밀알연합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10기 미주목회자아버지학교 스텝들

제10기 LA 목회자아버지학교 개강  
8월 18일...교회내 남성사역 세우기

제10기 LA 목회자아버지학교가 오는 8월 18일(월) 오후 2시30분 시작된다. 19일(화)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24일(주) 오후 4시30

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LA소망장로교회(담임 성준기 목사)에서 3일간 개최된다. 지난 95년 시작된 아버지학교는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동남아, 호주, 유럽, 미국, 캐나다 등 53개 국가에서 5,200여회 진행되고 있으며, 약 30만여 명의 아버지가 수료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 4월 처음 개설됐고, 올 상반기까지 604회 개설됐으며, 수료자는 25,240명이다.

아버지학교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 가정의 목사,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비전선언문을 가지고 있다.

제10기 아버지학교의 강사로 나서는 권준 목사(시애틀현교회 담임)는 "아버지학교는 믿음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 95년 시작됐다"고 말하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남성으로 어떻게 사역을 세우는지 알아야 한다. 교회는 여성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학교가

교회에서 남성을 세우는데 중요한 일이라 반드시 목회자들의 참여를 권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버지학교 관계자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좋은 남편과 좋은 남자가 되어 한다고 말하며 아버지학교가 그렇게 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버지학교를 통해 부인과 자녀들 간증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창국 본부장은 아버지학교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며, "아버지학교는 미국의 가정 회복의 첨병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아버지학교를 통해 목회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경험을 들려주며 가정회복에 아름답게 이루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버지학교에 대한 문의는 (213)382-5454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살롯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기념예배  
8월 17일, 장로 장립 등 총 13명 임직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지난 27일 공동의회를 열고 총 13명의 임직자를 선출했다.

담임 나성균 목사는 "그동안 당회에서 추천해 임직을 준비했던 후보들이 임시 공동의회에서 전원 3분의 2 이상 90%가 넘는 지지투표를 받았다"며, "교회가 다시 한번 단합과 사랑, 열정 그리고 결집된 역량으로 뜨겁게 전진해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직예배는 8월 17일 설립 37주년 기념예배 때 드리게 된다. 임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로 장립: 전재현 △장로취

임: 조동식 △안수집사 장립: 성기태, 임성기, 전승현, 전오현 △안수집사 취임: 진태형 △권사 취임: 이수경, 신천화, 유계자, 김해숙 △명예집사: 허정남 △명예권사 이병란.

한편 동 교회는 27일 저녁 프리차드메모리얼침례교회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극동방송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을 후원했다. 살롯장로교회 교인들은 예배와 공연을 마친 후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각 가정에서 합창단원들의 당일 숙박을 제공했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동부교계 게시판



프레스 어노인팅 2014

뉴저지와 뉴욕의 청장년들에게 신앙의 도전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 "프레스 어노인팅 2014"가 8월 22일(금), 23(토) 저녁 7시30분과 24일(주) 저녁 7시, 뉴저지 드와이트머우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온전케 하심"이란 주제로 "맨해튼 거리의 전도사" 지용훈 목사가 강사로 선다. 워싱턴은 리더 김영진 목사(우누리교회)와 Fresh Anointing Worship Team이 담당한다. 이메일 ikim89@hotmail.com ▲문의: (845) 709-5225/김일영 목사

이영주 자매 자선 콘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3'(2011년) 출신 크리스티나 이(이영주) 자매의 자선 콘서트가 8월 10일(주) 오후 6시30분 뉴욕 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영주 자매는 현재 Kittay House와 St. Vincent Hospital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고 있으며 교도소 방문 등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의 주제가 '희망의 콘서트'처럼 수익금 전액은 뉴욕신광교회 단기선교팀을 통해 멕시코 유카탄 지역 빈민들을 위한 주택 지공공사 사역과 가난과 마약으로 찌든 청소년구급팀 창단을 위해 사용된다. ▲문의: (718) 357-3355, 1010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원들이 기아대책 조끼를 입고 모자를 들고 기념 촬영 했다.

8월 5-8일 콜롬비아 선교센터 방문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회, 조기 모자 배부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8월 콜롬비아 아동 선교센터 방문에 앞서 지난 24일 7월 월례회를 갖고 선교지 방문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의 주 목적은 후원하고 있는 아동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김혜정 선교사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아구아다 센터(300명)와 최근에 사역을 시작한 갈갈(80명) 등 2곳이다. 김 선교사의 또 다른 사역지 치아 센터(100명)는 일정상 이번에는 방문하지 못하게 된다. 방문직원들과 아동들의 전체 만남은 2회의 생일파티와 수요예배로 각각 메시지를 전하고 선물을 증정하며 출발 당일 공항에도 아동들이 나와 만남을 갖게 된다. 그 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아동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총 일정은 8월 5일 새벽 뉴욕을 출발해 9일 새벽 JFK에 도착한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장경혜

목사 인도로 기도 권케더린 목사, 설교 박진하 목사, 축도 임병남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진하 목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본문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담은 구원이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의 실천을 들어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한 사람이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밖에 있어 자유한 것 같은 간수는 죄로 인해 갇혀있는 사람이야. 간수가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자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구원받은 간수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온 가정이 행복해진다. 어린이 한 명이 행복해지면 그 가족들이 행복해진다. 이번에 콜롬비아 방문 기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방문하게 된다. 이 일을 잘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 회원들에게는 기아대책 마크가 들어간 조끼와 모자가 배부됐다. (유원정 기자)

잘못된 신관, 성경해석...구체적 대책 팀 제시

뉴욕목사회 이단대책세미나, 강사 이종명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익 목사)가 주최한 이단사비대책 세미나가 지난 28일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익 목사)에서 개최됐다.

홍무 유상열 목사의 사회로 회장 인사 및 기도 후 이종명 목사를 강사로 세미나를 시작했다.

황동익 목사는 "이단대책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단과는 예수 오실 때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는 깨어서 대처해야 한다. 교계 연합은 이단 막고 큰 문제를 막기 위해 하는 것 아닌가" 반문하고 "이단 문제는 뉴욕에서 단절하자"고 강조했다.

강사 이종명 목사(뉴욕강성장교회 담임)는 이날 구원파와 신천지, 신옥주에 대해 영상물도 보여주며 강의했다.

구원파는 권신찬 유병언(기독교복음침례회), 박옥수(예수복음침



뉴욕목사회 주최 이단대책세미나에서 이종명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회), 이요한/복질(대한예수교집례회) 등 3개 파가 있다고 말한 이 목사는 "2주전에도 TV조선 기자가 유병언 계열의 교회가 뉴욕에 있으니 함께 가달라며 연락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모든 이단은 뉴욕

으로 온다. 뉴욕에서 포교하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들이 허무맹랑한 신관, 삼위일체 이단, 10계명 부정, 성경을 다 만지 말라 등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며 성경과 정통기독교를 이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는 4년전 뉴욕에 들어왔다. 분란이 일어난 교회, 연약한 개척교회에 침투한다.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허물어서 신천지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추수꾼(신천지 전도사)들이 모이는 장소도 공개했다.

이 목사는 "교인들이 밖에서 하는 성경공부는 절대 막아야 한다. 교회에서 가르쳐라. 성도들에게 신천지의 잘못된 성경해석을 가르쳐야 한다"며, "새교인이 오면 사전을 찍으라. 거부하면 문제가 있다. 실명을 확인하면 신천지 교적부와 대조할 수 있다. 이단자료를 교인들에게 배포하라" 등의 신천지 방지 팀을 제 공했다.

또 최근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신 옥주(은혜교회)는 기성 목회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을 과시한다며, 이제는 이단들이 숨지 않고 드러내고 포교한다고 말하고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조선족들도 많이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종명 목사는 "이단대책은 비난과 위협이 따르나.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로 진리수호에 전심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한동대 장순홍 총장일행과 뉴욕교계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청년복음화...통일한국에 관심

한동대 장순홍 총장, 뉴욕 목회자들과 만남

한동대학교 장순홍 총장 일행이 지난 24일 저녁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뉴욕교계 목회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급년 2월에 한동대 5대 총장으로 취임한 장 총장은 핵공학 전공으로 카이스트 부총장(2005-2010년)을 역임한 바 있다. 장 총장은 MIT 유학시절 보스턴한인교회를 섬겼으며 현재는 대전새누리교회 전도팀장으로 섬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 총장은 "신앙에서 강조할 것은 '전도'라고 생각한다. 전도를 통해 신앙이 자라다고 생각한다. 총장실에서도 전도를 강조했다. 한동대에 가게 된 것도 전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현재 한국 청년복음화율이 4%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총장 취임하면서 3가지 비전을 세웠다. 첫째 열매맺는 신앙인, 둘째 달란트를 개발해 훌륭한 신앙과 실력을 갖춘다. 셋째,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 한동대를 위한 신앙과 프린스턴 예일의 실력을 갖춘 대학으로 만드는 목표를 향해

나기려 한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키우기 원한다"고 말했다.

장 총장은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10대 목표를 소개하고 '통일 한국에 관심을 가져달라. 특히 한인 2세대들이 통일한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뉴욕 목회자들이 한동대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5%가 PK, MK, 장애인, 새터민인 한동대는 이제 '주는' 한동대로 이동원 목사팀과 협약을 맺어 12개 지역에 선교센터를 만들어 한동대 출신들이 일하고 있다고.

최지호 목사 사회로 진행된 장순홍 총장 뉴욕간담회는 유상열 목사(목사회 총무)가 참석자를 소개했으며 황동익 목사(목사회 회장)가 환영사를 했다.

동행한 원재철 비서실장은 청년 시절 퀸즈한인교회에 출석해, 친분 있는 뉴욕 목회자들과 반가운 만남을 갖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한인교회 설립기념감사 및 선교사파송식에서 연합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섬기며 희생하는 가족 같은 교회"

퀸즈한인교회 설립기념감사 및 선교사파송식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가 지난 27일 설립 45주년을 맞아 감사 및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이규섭 목사는 "지난 45년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련을 극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교회는 서로 섬기며 희생하는 한 가족이 돼야 한다. 오늘 특별히 선교사 파송식이 있는데 요즘 65세 은퇴한 건강한 장로님들께서 선교지에 가셔서 5년, 한 주기 이상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 과테말라로 파송하는 이종범 선교사도 벌써 세 번째 경우다. 노년과 젊은이들이 함께 일어나라 확신을 위해 살게 될 이종범 장로부부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믿는다"고 전했다.

1부 예배는 이규섭 목사 인도로 기도 심장우 원로장로, 찬양 연합

찬양대 & 오케스트라, 말씀 박희소 목사("성도의 감사", 살전5:18), 헌금특송 KCQ솔리스트 앙상블, 교회악사 백남경 장로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선교사 파송식은 서약과 안수기도에 이어 악수례, 임명예 증정이 있는 후 활동의 뉴욕목사회 회장에 축사했다. 이어 KCQ장로성가단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이규섭 목사의 축사로 마쳤다.

이번에 과테말라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종범 장로는 동 교회 10번째 파송선교사로 지난 1월부터 현지 중학교에서 147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복음과 함께 기초음악과 플루트를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영광까지 주셔서 은혜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원정 기자)

<p><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동부(NY, NJ) 교회</b></p>		<p><b>뉴욕갯세마네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서신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후 6:00</p>	<p><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서신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5</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서신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서신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9: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서신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후 6:00</p>	<p><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서신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뉴욕주부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5:45(월-토)</p>	<p><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수요서신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00(월-토)</p>	<p><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5:40(화-금) 수요예배: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창년복음성경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서신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p>	<p><b>통일대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서신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세례기도회: 오전 6:00</p>		
<p><b>선한목자교회</b> 담임목사: 황영진 주목사: 박준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9: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45</p>	<p><b>에벤에셀신학교</b>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3: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9:00</p>	<p><b>에사라교회</b>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p>	<p><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 1부예배: 오후 12: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초대기도회: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p>	<p><b>퀸즈산도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p>	<p><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미아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서신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9: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하와이 및 북미 지역</b></p>		<p><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p><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전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월 14일 토요일: 아침 7:40 일, 주, 중, 금요일예배: 오전 9:30(주일) 오전 9:30(주일)</p>	<p><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 세례기도회: 오후 7:30</p>	<p><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담임목사: 임한근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1, 2, 3, 부스페타나 성로)</p>	<p><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서신예배: 오후 7:00 주요예배: 오후 9:30(월-토)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찬양”

## 남가주교회음악협 주최 제1회 CCM페스티벌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이하 교회음악협회, 회장 사병호 장로)가 주최한 제1회 CCM페스티벌이 지난 27일 오후 7시 KCCC 소극장에서 열렸다.

사병호 회장은 “이민교회에서 KM과 EM, 그리고 세대별로 문화적 차이가 많이 있다. 또한 교회음악 역시 클래식과 현대음악의 차이

가 많음을 보게 된다”고 말하며 “현대음악 즉 CCM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음악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교회음악협회에서 처음으로 CCM페스티벌을 열게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페스티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회음악협회 CCM 분과위원장

### KCCD주최 제13회 주택구입 박람회

8월 16일 오전 9시-정오 일서연합감리교회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회장 임혜빈가 주최하는 제13회 주택 구입 박람회가 오는 8월 1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일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된다.

임혜빈 회장은 “크레딧과 다운페이먼트 등 개인적인 신용문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늘어가고 있어 올해도 주택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 정부와 유니온뱅크, US뱅크 등 주류 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구매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전문가들로부터 크레딧과 용자 재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KCCD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정부 지원 6만 달러 다운페이 보조금 혜택 수혜방법 △크레딧 점수 향상에 대한 방법 △첫 주택구입자용 특별용자 프로그램 안내 △의사, 교직원, 경찰 등 전문직 종사자 전용 용자 프로그램 안내 등 주택구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이와 A01의 리더인 랜디 김 씨의 사회로 시작된 페스티벌은 이하라, 윤요한, 양지아 등 CCM루키 오디션 콘서트 참가자들과 풀타임연주자 최진, CCM가수 최윤영씨와 그룹 A01이 출연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전출연자들이 ‘Joyful Joyful’을 함께 부른 뒤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공될 예정이며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니온뱅크, US뱅크, 시타뱅크, 밴크오브아메리카, 보스턴프라이빗뱅크, 밴크오브더웨스트, 체이스 등의 전문가와 KCCD 케이스 매니저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각종 용자 프로그램과 보조금 신청 방법, 다운페이 보조금을 6만 달러까지 지원받는 방법, 3대1 적금 매치 프로그램으로 1만5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크레딧 점수를 향상시키는 방법, 첫주택 구입자 용자프로그램, 3천 달러 상당의 부동산 매매 수수료 보조금, 의사, 경찰,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용자 프로그램 등이 소개된다.

참석 희망자는 KCCD 웹사이트(www.kccd.org) 또는 전화(213-985-1500)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제1회 CCM페스티벌이 KCCC소극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청중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동양선교교회 설립 44주년 임직감사예배에서 임직식을 마친후 임직자들과 순서말은 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D가 주최하는 제13회 주택구입박람회 개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임혜빈 회장이 설명하고 있다

### 동양선교교회 설립44주년 임직감사예배

#### 구자경 장로장립 등 4명 임직

동양선교교회(OMC, 담임 박형은 목사)는 설립 44주년 임직감사예배를 지난 27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

김경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임직감사예배는 정병호 장로가 성경봉독을 하고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이어졌으며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행 13:21-23, 3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열린 2부 임직식은 박형은 목사의 서약, 안수위원들이 임직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했으며, 박 목사가 기도를 선포했다. 특히 이날 눈에 띄는 것은 박형은 목사가 임직자들에게 세족식을 시행해 임직자들이 교회공동체의 일원임을 더욱 확인해주기도 했다.

이어서 임동선 원로목사가 권면했으며 김영안 집사가 특송, 박형은 목사가 임직과 증경, 구자경 장로가 답사했다. 이날 예배는 임동선 목사

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이다.

△장로: 구자경 △안수집사: 정구현 △قس사: 오은주, 한승향

(박준호 기자)

### 더넨트 파킹랏 콘서트 ‘한여름 밤의 꿈’ 성황

거리문화사역단체 더넨트(대표 다니엘 랑 목사)의 파킹랏 콘서트가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주제로 26일 가주영어학교 주차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콘서트는 CCM가수 이정열 씨와 찬양사역자 조영석 전도사, 그룹 A01과 지난 12일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CCM루키 오디션 콘서트에 참가했던 백수진 씨와 최재량 씨가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한여름 밤 한인 타운을 시원하게 적셔 주었다.

이날 콘서트 장을 찾아온 관객들

의 열렬응응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파킹랏 콘서트가 세대를 초월해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로 묶는 자리로 엮어 내기에 충분했다.

백수진 씨와 최재량 씨의 공연에서는 진솔함이 응성에 담겨 전해졌으며, 이정열 씨가 발달함이 묻어나는 ‘위대한 사랑’을 부를 때 이날 모인 청중들이 곡에 맞춰 박수를 치며 큰 호응을 보였으며, ‘겨울의 꿈’을 열창할 땐 공연장 열 커피전존점을 찾은 손님들이 찾아와 감상하기도 했다.

또한 랜디 김의 기타연주와 보컬 헌터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그룹 A01의 공연에서는 수준급 퍼포먼스에 매료되기도 하는 등 더넨트의 파킹랏 콘서트가 거리문화사역의 아이콘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인상을 주었다.

이날 출연해 ‘주인에 있는 내게’, ‘십자가 그 위에’를 부른 조영석 전도사(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는 “다른 공연과 달리 파킹랏 공간에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좋았고, 출연자와 관객들 모두에게 찾고, 고기 바베큐, 커피 등이 제공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파킹랏 콘서트는 오는 8월 9일

# 서부교계 게시판

### 청운교회 장학생 선발

청운교회(담임 이명수 목사)가 제 7회 장학생을 선발한다. 일반 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목회 장학금은 선교사 목자 가정의 자녀 및 신학생으로 LA주 학생에 한한다. 제출 마감은 8월 16일.

▲문의: gvcinla@gmail.com

### 담임목사 청빙

뽕피장로교회(아리조나 소재)는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재미 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 이종언어가 가능하고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5년 이상 목회경력 있는 분을 청빙한다.

▲문의: Junpak@cox.net

### SOD 공연을 마치고 출연한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14 SEEDS OF WORSHIP 음악회 성료

#### 어린이들,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님 찬양

2014 SEEDS OF WORSHIP(SOD 단장 에스더박) 음악회가 27일 오후 7시30분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학부형들과 성도 및 청중들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50여 명의 어린이 단원들이 노래와 율동, 발랄한 댄스로 다양한 무대를 연출했다.

에스더박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의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운을 뗀 후 “어린이들과 함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에서 어린이들은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Wake by Hillsong’, ‘완전히 신 나의 주’ 등을 불렀다. SOD는 지난 2010년 9월에 창립했으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SOD 입단에 대한 문의는 (714)904-8434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더넨트의 파킹랏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토) 같은 장소에서 CCM루키 오디션 콘서트 참가자(아하라, 김용훈, 윤요한, 이현지, 홍세영, 양지아, 최형민)들의 무대로 펼쳐지게 된다. 한편 더넨트는 거리문화사역을 위해 공연

장 무대설치 및 정리, 그리고 주차장 안내와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서부(CA)교회안내</h2>						
<p><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lrock@gmail.com</p>	<p><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인대학원: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남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남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b>남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토)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un.org</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세례) 후: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un.org</p>
<p><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월요일예배: 오전 11:30 월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202)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9) Fax: (213)215-8523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남가주사망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KC): 월요일(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4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p>	<p><b>동원교회</b>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949)854-6625, Fax: (32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gkpc.org</p>	<p><b>동양선교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8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가는 우리의 등 돌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FB L.A., CA 90033</p>
<p><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저녁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비전 18세부터: 오전 6:30(토)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1-0690, Fax: (562)691-069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p>	<p><b>새찬양교회</b> 담임목사: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newpraisechurch.org / vbyon@gmail.com Tel: (714)226-0100, Cell: (714)944-8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성남침례) 후: 오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0, Fax: (213)381-2535 170 Binimi Pl., Los Angeles, CA 90004</p>	<p><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90505</p>	<p><b>베델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전 11:00(헌신) 대형찬양예배: 오전 11:00 대형찬양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1:00(영성) www.belethibk.org Tel: (949)854-4010 / E-mail: belethibk@bc.org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www.bkcc.org</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175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31</p>	<p><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b>요셉선교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Torrance, L.A., CA 90020</p>	<p><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인칭)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목요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9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목요예배: 오전 11:00(주일)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andyok.org Tel: (818)249-8871, Fax: (818)249-0516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p>	<p><b>얼바인침례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irancc.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2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mjcn.com</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gjcc.org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Blvd., L.A., CA 90015</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nestonch.com / e-mail: pastor@conestonch.com Tel: (310)530-4001(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803</p>	<p><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성) 장요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ancecgc.org Tel: 310-370-5500 /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mjcn.com</p>			

### 이단 전문가들이 본 유병언 사후 구원파는...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주검이 구원파 수장인 유병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구원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단사적 전문가들은 "구원파가 당분간 임시 체제로 운영되다가 분열되거나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23일 "현재 구원파 내에는 유병언을 대체할 만한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없다"면서 "핏줄인 유혁기 씨마저 수배 상태여서 장기간 위기관리 체제, 집단 지도체제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탁 교수는 "구원파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몰락·소멸할 텐데 이따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통일교처럼 기입형 종교이다 보니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각정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이 오대양 사건처럼 자살·타살에 있는 만큼 미세사건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의 초점이 유병언에게만 맞춰지고 또다시 오대

양 사건처럼 미세사건으로 흘러간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유씨의 죽음을 통해 수혜받는 그룹이 어디인지 꼭 지켜봐야 하고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유병언의 해외 통역을 맡

았던 정동섭 전 침신대 교수도 "후계자가 유혁기였는데 도피 중 이다보니 후계자 역할을 하긴 힘들 것"이라며 "집단 지도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선장을 잃은 배와 같은 꼴이다보니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원파가 유병언을 신격화하면서 존속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장은 "유병언이 죽었다고 해서 구원파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부에선 그를 순교자로 신격화하고 교주로 숭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원파에서 32년간 활동하다가 탈퇴한 김모씨는 "구원파는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종교 집단이다. 쉽게 무너지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 "집단 지도체제로...결국은 소멸" "유병언 신격화하고 존속할 것"

의혹이 불거지다가 흐지부지되는 것"이라며 "이미 금수원에 있는 구원파 핵심 지도부는 오대양 사건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탁 교수는 "구원파는 본질의 본질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을 차별

과거 유병언의 해외 통역을 맡

### 가톨릭과 기독교 일치운동 적극 반대 호남지역 기독교인들 교황 한국방문 앞두고

오는 8월 전주교 교황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호남지역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와 가톨릭의 일치운동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추진 중인 기독교와 가톨릭 일치운동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전남노회협의회는 "지난 22일 광주 봉선동 겨자교회(담임 목사 나학수)에서 비상집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비상집회에는 광주전남지역 17개 노회, 전북 지역 16개 노회, 제주지역 2개 노회 등 35개 노회에 소속된 각 교회 목사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비상집회는 광주와 전남·북, 제주 등 4개 지역 노회협의회와 노회장협의회, 광주전남목사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가 지난 5월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한국성교회, 한국전주교구협의회(CBCK) 등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한국신앙직제)'를 창립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와 로마의 혼합종교인 가톨릭교를 구분하지 말자는 성경 말씀을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교회 100여년의 유구한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며 "기독교와 로마의 혼합종교인 가톨릭교 일치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상집회 2부에서 강의에 나선 송준길(로마가톨릭교 교황정체알리기운동연대 조직위원장) 목사는 "한국 교회와 신앙의 순수성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며 KNCC가 CBCK 등과 한국신앙직제를 창립한 것을 맹렬히 비판했다. 송 목사는 이날 자신이 저술한 '가톨릭과 바람 난 한국교회' '흑백보다 더 다른 기독교와 가톨릭' 등의 책 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마리아를 우상화 한 가톨릭과 기독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KNCC가 가톨릭과 손을 맞잡고 한국신앙직제를 만든 것은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이어 "한국 기독교계는 이단에는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정작 로마 가톨릭과 같은 우상종교와 일치운동을 벌이는 데는 손을 놓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의미를 가톨릭에 팔아넘겨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예정장동 부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격려사에서 "기독교계 일부가 가톨릭과 기독교의 일치를 도모하

는 등 한국 교회가 온갖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밝혔다. KNCC는 2000년대 이후 기독교와 가톨릭교 모두 하나됨으로 나온 만큼 두 종파 간 경계를 허물자는 운동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KNCC는 그동안 가톨릭과 친교를 강화하고 교류 분야를 점차 확대해왔다. 하지만 가톨릭 교황의 한국 방문이 임박한 상황에서 광주전남노회협의회가 주축이 된 호남지역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와 가톨릭 일치 반대운동을 결의해 파장을 키우고 있다. 광주전남노회협의회 관계자는 "초교파적으로 기독교와 가톨릭의 일치운동을 저지하기로 했다"며 "순수한 성경적 기독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가톨릭과 일치를 추구할 게 아니라 영원히 결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50개국 청·장년 세계선교 비전 다진다 27차 세계CE 한국대회 개막

50개국 3500여명의 기독교청·장년 대표들이 참여하는 제27차 세계CE(기독교청년회) 한국대회가 23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개막했다. 참석자들은 26일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성장 비전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선교의 비전을 다진다. CE는 80개국 93개 장로교단의 청년부, 장년부, 남장도회 연합체로 등록회원만 200만명이 넘는 국제적인 종교단체다.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고신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 개회예배에서 안명환 예장 합동 총회장은 "나눔과 희락"이라는 설교를 전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되자고 강조했다. 안 총회장은 "한민족은 원래 나눔과 섬김을 잘하는 민족으로 서로를 잘 돕는다"면서 "그 정신에 따라 세계CE 한국대회에서도 대령교회의 도움으로 농어촌, 도서지역 성도들을 다수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안 총회장은 "국가적으로는 세월호 참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독교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유가족을 돕고 있다"면서 "성령의 핵심은 기쁨인데 성령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세계에 퍼뜨리는 데 힘쓰자"고 말했다. 세계CE 안드레아스 루돌프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 주제인 '일어나 영방을 깨우라'는 바울이 주님께 받았던 도

전적 메시지와 비슷하다"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유익하게 듣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자"고 말했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위십코리아 축제'는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진 열정적인 자리였다. 강단에 선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대장부가 되라'는 설교에서 "CE회원 모두가 다윗처럼 신하 시 하나님을 잘 섬겨 믿음의 거룩한 대장부가 되길 바란다"면서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며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자"고 독려했다. 통역용 이어폰을 귀에 꼴은 외국 참석자들도 한국 성도처럼 "아멘"을 외쳤다. 전 세계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백제가야금연주단, 생양상방, 두드락 등의 공연을 보며 한국 복음성가를 접했고, CCM그룹 PK의 찬양에 맞춰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 성도들의 열정적인 찬양 모습이 신기하단 듯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면 수바소나(54) 장로는 "복인도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처음 왔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 비전을 꼭 체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4년마다 개최되는 대회는 부흥회와 선택특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정현(서울 사랑의교회) 루돌프 웨스터하르트(독일CE) 목사가 저녁 부흥회를 인도하며 선택특강, 특강, 뮤지컬 갈라쇼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 예장 합동-통합 8월 10일 연합예배 증경총회장들 교회 분열 갈등 회개 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교단 증경총회장들이 교회 분열과 갈등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연합기도회를 8월 10일 가기로 했다. 양 교단 증경총회장들이 지난달 30일 연합예배를 드린 데 이어 두 번째 연합모임을 갖기로 합의한 것이다. 예장 합동-통합 증경총회장회는 24일 서울 중구 동호로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치유와 회복"이라는 대명제 하에 광복 주일인 다음 달 1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연합기도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장 통합 증경총회장 김순권 목사는 "이번 기도회는 양 교단을 합치자는 것, 새로운 연합기구를 만들기 위한 순수도 아닌 순수하게 비정치적으로 회개하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한국에서는 제일 큰 양 교단이 나눠지면서 이후 많은 교파가 생겨났는데 양 교단이 '교회 분열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둘러싼 분열이 기도회를 열게 된 계기라는 점도 밝혔다.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는 "한국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한기총을 처음 맡기해서 시작한 교단이 통

합과 합동"이라며 "(한기총에 대해) 양 교단과 많은 분들이 격정하고 사회에서도 지탄하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등으로 (한국교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지 때때로 양 교단이 나서는 회개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양 교단 모임을 증경총회장들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 김순권 목사는 "이런 행사는 교단 집행부가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임원이 추진하면 (각종 단계에서) 허락과 인준이 필요한 등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모임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단 원로들이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예장 합동에서 한석기 회계장 김동원 서기형 총정 목사, 예장 통합에서 임인식 김경인 김순권 김삼환 목사가 참여했다. 준비위원 가운데 예장 통합 박종준 목사는 사정도로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장 합동은 다음 달 열리는 기도회와 교단 내부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들 원로의 움직임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안명환 예장 합동 총회장은 이날 "우리 교단에선 예장 통합과 강단 교류가 금지돼 있다"며 "만약 (양측이) 기도회를 드리면 총회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충격 자사고 전환 기독교사학들 항당 반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안산동산고(교장 홍원용 목사)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학교와 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안산동산고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도가 높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안산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18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자사고는 교육감이 5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

를 결정한다. 이에 안산동산고와 학부모들은 평가결과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평가자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평가결과 불복절차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길 교무부장은 "재단과 학교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청문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무부장은 "특히 기독교 소명감으로 열의를 다해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당황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안산동산고의 한 학

부모는 "경기도엔 일반고가 342곳인데 비해 자사고는 두 곳뿐"이라며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에 무슨 심각한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교육협의회 김용관 전 회장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방침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전 회장은 "안산동산고는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자사고"라며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뀐다면 학생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음 달 11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리는 전국교육 여름수련회에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사고로 전환한 기독교사학들도 항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산동산고는 학생을 회초리가 아닌 사랑으로 가르친 것으로 유명하다. 이 학교 발전의 밑바탕에는 기독교 교육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경건회'라는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한다. 이 학교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뒤에는 사립학교당 20억~30억원가량 되는 정부의 재지원도 받지 않고 신양교육을 강화했다. 매년 서울·연세·고려대 합격생은 100~150명씩 배출할 만큼 전국 명문고로 발돋움했다. 교계 관계자는 "안산동산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자사고 취소 방침은 철저히 마땅하다"고 말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b>덴버에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혜준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0:30 주일부흥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백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해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b>벨렐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8:3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청소년예배: 오전 10:15 (8월: 오전 11시) 영지: 유년: 오전 10:10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강론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b>앵커리지델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 오후 2:00	<b>엘파소델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b>은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새벽기도: 오전 11:00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 7시(금, 토, 주일)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한/영)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경효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버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b>템프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한/예)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영-한) 오전 5:30(토) 오전 6:0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선교 펄기

## 스페인

### 유럽의 끝에서 전하는 소식

살롬! Shalom! Cómo estás?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유럽의 끝 도시 말라가는 온화하고 평화스럽기만 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외치는 자 없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도 없는 옛 니스웨 성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은 늘 다니던 길이 아닌 작은 골목길로 걸어보았습니다. 처음 걷는 그 길에 스페인 바랑과 떨어지는 작은 나뭇잎이 외로운 길의 오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600년 전에 떠나갔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골목들을 단장하였을 것인데 지금은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곳에 다시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길 소원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두 달간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티나와 멕시코, 에콰도르에서 온 신 사역자 분들에 의해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소규모의 모임이었지만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언어혼란을 열심히 하여 이 교회들을 잘 돕고 세워주는 일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신교 비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곳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이슬람권 사역자 컨퍼런스가 지난 6월 말에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의 귀한 사역자분들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제한지역이라는 것으로 인해 많은 제약 속에서 계시던 분들의 모임이었기에 더욱 주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함께 협력할 사역자들을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도 VBS(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해 했습니다. 지

울 잘 따라가길 소원했는데 선입선교사가 없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선의이 주셔서 잘 정착을 했습니다. 또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스페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북아프리카 이민자 무슬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곳 스페인 남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많은 무슬림들이 그들의 이슬람 라마단 금식기간을 맞아 북아프리카 자기 고향으로 라마단을 보내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러한 열심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으로 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함께 드릴 기도들

1. 모로코와 스페인의 국경도시인 멜리야로 하루에도 수십명의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먹을 것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2. 그 난민들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첫발을 댄 곳이 이곳 말라가입니다. 함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우며, 그들이 다시 북아프리카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3. 언어와 문화 훈련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4.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5.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유럽의 끝에서  
 남사현, 이현진(예향, 이안, 케빈)드림

malagamission@gmail.com



## 방지일 칼럼 (50) “본대로 들은 대로”

### 소명자(召命者)에게 일감은

하나님께서 어느 분야의 일을 맡기시려 부르신 바이면 그에게 일감을 주시게 되어있다. 소명자에게는 사명이 있게 마련이다. 나는 근자에 자유의 몸이라 때로 이런 저런 모임에 가게 된다. 선교사들의 모임에도 자주 가게 된다. 자주 출국도 하게 된다. 런던도 우리 선교사 지방하신 분들이 훈련차 많이 와 계시다. 어느 곳이 지방이신가 물어보면 중국선교를 지방하신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중국에는 수십 민족들이 있는 다민족 국가인데 어느 민족에게요 몰으면 아직 중국서 외국에 나온 유학생 상대로 할 길을 찾자는 말도 듣는다.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심이다. 이렇게 착상도 할 수 있겠으나 선교를 위한 소명을 분명하게 받았을 때를 그가 주시는 일감을 받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감일 때는 과연 미연 할 수는 없지 않은가도 생각이 나서 나는 이제는 노폐물이란 생각도 하면서 새 시대 새 인물의 구성하는데 맞지 않기도 하였으나 노파심에서인가 소명의식이 분명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심정도 들곤 한다.

분명한 소명, 부르심,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가 부르셨으니 그가 그에게 맞는 일감을 주신다. 그대로 순종할 뿐이라 소명없이 일감을 찾는다. 직장 구함같이 한다 함은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일감이 있는 것이다. 주신 일감을 감당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주시지 않은 일감을 찾아서 직장의식이 있다면 이는 성역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선교지방생들이 많기도 하다. 그 훈련을 받으려 출국도 한 분들이다. 수도도 없을 수 없다. 제일 첫째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문제인 것이다. 내가 선교지방생인가 학교 입학지원 같이 하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첫째이다. 부르심을 받아 주시는 일감을 감당하려 하면서 그 일감이 받을 훈련이라야 할 것이다. 일감 없는 훈련은 무의미하다.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 되고 만다. 이런 인적 물량적 소모가 적지 않은 듯 보인다. 인적자원도 물질적 자원도 낭비해선 안 될 것이다. 적당하게 쓰여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한 그 인재이므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요, 이를 낭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헌물에 대한 거룩한 성물을 속되게 함이라 얼마나 큰 과오가 되는지 모른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적격이 못된다고 강하게 사양하였으나 하나님의 강한 강권으로 그는 드디어 부르심에 부응하여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의 짐고를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그리스도 속죄구렁의 예표로 모든 제사족이 되게 되었다. 사양도 할 수 없다. 필요해서 부르심이라 그 큰 일감을 주신 것이다. 그러하다. 오늘 모든 선교사들은 그의 부르심을 먼저 인식하고 나서 주시는 일감을 받는다함을 재확인하고 움직여야 한다. 소명 없이 출국을 하면 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나와서 무용한 수고가 너무나 아깝다.

모름지기 골방에 다시 들어가 그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의 주시는 일감을 받아 감당할 것이다. 어떠한 불확실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라. 적지 않은 비용을 써야 한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할 일은 더 다급해지는데 시간을 어떻게 허비할 수 없는 일이라, 불속에서 끄집어내야 할 가련한 이들이 많이 원조를 부르짖고 있다. 마게도니아인이 도처에 많기도 하다. 영안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듣는다면 너무나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가 많이도 들린다. 재빨리 구원해내야 할 터인데 한가하게 예나 제나 기로에 방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울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터이다.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일할 것이라 지체할 수도 없다. 시간이 급박한 것이다. 그렇다고 졸속히 할 일도 못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은 기다려야 한다. 골방에 우선 들어가야 한다.

(1999년, 3권)

## 푸 / 린 / 초 / 장

(4면에서 계속)

끝내 그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이 받은 축복을 가로챈다고 인하여 도망자 신세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낮에는 두류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발이 겨울도 없이 20년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압록 나무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깨가 부러졌고 세겜에서 딸 디나를 겁탈을 당하고 그에 따른 살육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요셉과의 생이별 등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오늘 우리의 나그네 길도 평안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도들이 앞으로 갈 본향 천국에서 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신 것은 그가 속임과 간사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선민이שראל 공동체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야곱이 보낸 험악한 세월은 그를 연단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 인격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의 나그네 인생길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나그네 길을 바로 걷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고향집을 버리고 나그네 인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출생할 때 말구유에 누워서야 했고 해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머

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을 빌려 묻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장차 거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내 나그네 길의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여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되어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8쿠바
B 코스: 터키 그리스 뱌모섬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체코 이탈리아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O TPK, FLORAL PARK, NY 11001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택 주소	.....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아세요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q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83,9181 Email, laquesthouse@live.com



멕시코

멕시코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멕시코 '성경묵상사역'은 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역 외에 현지교회를 방문하며 설교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모임,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저희 사역에 대해 알게 되고, 매일 정기세미나에 참석하시며 성경묵상사역이 어떤 일을 하는지 더 깊이 알고 원하시는 목회자들이 저희들을 교회로 초대 해주십니다.

저희들은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에 배를 통해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성경묵상훈련을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 진정으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및 평신도 특별세미나

5월 1일 목회자 및 평신도를 위한 특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직장관 여러 가지 이유로 정기세미나에 참석이 힘든 분들을 위해 휴일을 택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세미나에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멕시코시티에서 4-5시간 떨어진 곳에서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상황적인 편리함을 갖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불리한 상황에서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을 보며 다시 한 번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용기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휘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재진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기세미나

4월 정기 세미나는 Ricardo Garcia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Ricardo 목사님은 2009년부터 성경 묵상사역이 주최하는 모든 세미나에 참여하시며 훈련을 받아 오셨습니다. 작년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 정기 세

6월은 한여정 선교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되는 길이 원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리더들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와 함께 양육 받고 있는 11명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인 신 내와 신실하심을 기초로 저희 또한 멕시코 사역자들을 세워가는데에 인내하며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라성경학교 2014년 첫 학기 종강

숨을 배우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기에 학생들의 노력이 더 값지게 느껴 집니다.

하나님께서 멕시코에 에스라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사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옳지 않은 적용을 하지 않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역자로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 갈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주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기도제목: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박지만 선교사는 9월 한 달 동안 잠시 사역을 멈추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심을 통해 육적인 건강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말부터 에스라 성경학교 2학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도록

-Oaxaca, Puebla에서 있을 성경묵상 집중훈련을 위해 -격월로 발행되고 있는 성경묵상 교재출판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 <연락처: agustinahan@gmail.com

선교 소식 아이티 단기선교에 앞서

아이티 8월 팀이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올 찬양도 배우고, 인삿말도 배우고... 춤도 추고, 악기 연주도 하고, 풍선과 비드 팔지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러 가는 일도 쉽지 않지만 모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나주에는 24개의 박스에 샌들, 백팩, 학용품 선물용품들을 실어서 아이티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티 고아원과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는 바베이의 아이티인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1천명이 넘는 아이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축구공도 팔고 있습니다. 축구공마다 싸인 받고 돈 받고 축구공도 받는 이상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축구공을 아이티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 쌀값도 모이지 않았고 돈도 더 모아야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되리라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격려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운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조항석 목사(헬핑핸드 대표, 뉴저지 뿌리깊은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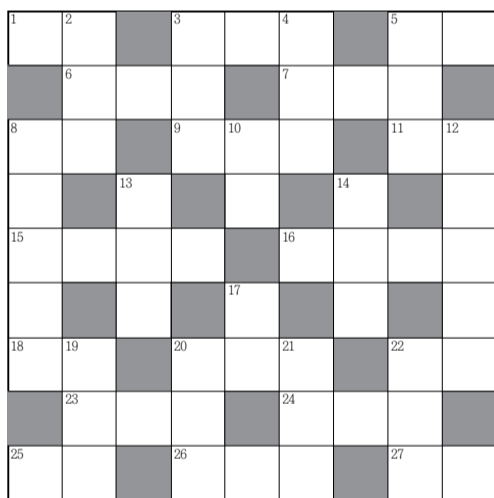


목회자 및 평신도 특별세미나가 은혜중에 진행됐다.



십자말 • Cross Word (46)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 1. 화합하고 고요함(누2:14).
3. 신을 밭에 매는 일(사5:27).
5. 꼭 필요함. 긴요(고전12:22).
6. 세 번째 문(렘38:14).
7. 갓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방백 엘리야삼의 아버지(민1:14).
8. 동물과 식물의 총칭(계4:7).
9. 유다 자손 셀라의 후손들이 살던 곳(대상4:22).
11.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출10:19).
15. 새끼소의 수컷(겔45:24).
16. 아내에게 귀어사는 사람을 조롱하여 일컫는 말(고사성어).
18. 힘이 센 나라(사60:22)
20. 셀라의 자손 마레스의 아비(대상4:21).
22. 레맥의 처ю 아발과 유발의 모친(창4:20).
23. 창고를 지키는 사람(스 1:8).
24. 가나안에 들어가 쫓아낸 족속중의 하나(삿1:4).
25. 네가 족속을 OO하라(계2:10).
26. 유대인이 포로되어 간 곳(출20).
27. 에벨의 장자(창10:25).

<세로 푸는 열쇠>

- 2.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레5:12).
3. 조선 태종 때 대궐의 문루에 달아두어 백성이 억울한 일을 호소할 때 치게 한 북(조선역사).
4. 요단강 동편 고원지대에 있는 중요 도시(민21:30).
5. 12 소년중 한 사람이 쓴 구약성서 중의 하나. 호세아서 다름.
8. 수정같이 맑은 OOOOO를 내게 보이나... (계22:1).
10. 세상의 풍속(약1:27).
12.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OOOOO(사104:13).
13. 잇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이다. 후에 왕위에 오르(왕상 15:28).
14. 하나님이 세상을 OOO 사랑하사... (요3:16).
17. 애굽인 산파. 지혜롭게 히브리인 산아를 구함(출1:15).
19. 나라의 창고를 건축해 둔 성(왕상9:19).
20. 가나안의 한 선출인대 여로수아가 점령하여 유다지파에게 주었다(수10:3).
21.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지방으로 스블론 자손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수19:20).
22. 베냐민의 아들(창46:21).

십자말 정답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10:00
금요심리기도회: 오후 9:00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로마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8:00(베일)
세례기도: 오전 6:00(베일)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세례기도: 오전 4:30(1부)부터 4회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2:30
주일5부: 오후 7: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세례기도회: 오전 5:00
세례2부예배: 오전 6:30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세례예배: 오전 7:30
(토요일을 합니다)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7:30
(토요일을 합니다)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달·토)
세례기도회: 오전 5:00(달·토)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세례기도회: 오전5:00/6:00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세례기도회: 오전5:00/6:00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리기도회: 오후 8:30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세례기도회(베일): 오전 5:30/6:30/9:00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세례기도회: 오후 5:00
금요심리기도회: 오후 9:30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30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4: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세례기도회: 새벽 5:30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66)



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 6. 교회교육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지난번에는 “커리큘럼 계획은 정적인(set/static) 것이 아니라 동적인(movable/transumative)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과 “반드시 먼저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이야기에 이어 그러한 유의점들 중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인교회들이 커리큘럼 계획 및 수립에 임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 중 세 번째는 섬기는 교회의 기존하는 교육커리큘럼을 먼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계획 및 수립의 필요성을 깨달아,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아마 해당 교회교육의 이전의 노력들을 고려하지

했는지 등도 꼼꼼히 들여다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현재의 모습으로 그 커리큘럼이 형성되어 있는지 안다면 이 또한 매우 유의하겠지요. 이렇게 기존 커리큘럼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했을 때, 사실 어쩌면 섬기는 교회의 기존 커리큘럼이 그것에 조금만 질서를 부여해도 생각보다 상당히 내실 있고 조직화된 커리큘럼으로 재탄생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대대적인 변화 및 개조가 필요한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허나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는 그 나름의 역사가 있고 상황적 독특성이 있으므로, 그 역사와 상황들과 상호작용을 거듭하며 현재의 커리큘럼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되었을 기존의 커리큘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리는 것이

한 구체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짚어야 할 면면들을 다 짚어야 하며, 또한 그 면면들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다른 커리큘럼 입안자들과 함께 고등부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수립하고자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기존의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어떠한 내용이, 왜, 어떻게 교육되어왔는지를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다시금 고등부 학생들이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교육적 요구(needs)가 엿인지 고려하여 교육할 내용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성경적 기독교적 기반자료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후 고등부 자녀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를 고려하여 교육내용에 맞는 교육방법

### 기존 커리큘럼 확인해 내실 있고 조직화된 커리큘럼으로 재탄생 구체적 일정표 형태인 교육과정지도 제작은 교육 실천에 효율적

않고 배제시키고자 한다는 것 일듯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체계적이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교육 과정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한인교회를 비롯해서 “교육”이라는 부분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는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정한 경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해하기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 방향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편 등이 타당하며 효과적인지에 관계없이, 일단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한인들의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위해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일은 한인교회들에게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기존의 커리큘럼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에 기존의 커리큘럼이 어떠했으며,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의점들 즉 충분히 탄력적인지, 그리고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진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현실적 유효성을 고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토대로 커리큘럼의 뼈대를 재편성하고 구체적인 부분들로 살을 채우는 일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일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일 것입니다.

커리큘럼 계획 및 수립에 임할 때 유의해야 할 네 번째 부분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커리큘럼이란 교육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을 튼튼하고 견고하며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지어가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미술의 경우, 회화와 같이 최대한 간소한 밑그림이 필요한 경우와 디자인처럼 최대한 면밀한 밑그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커리큘럼의 밑그림은 후자에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커리큘럼 계획에 있어서는 제반측면들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구체적”이라고해서, 이를 지나치게 자세한, 그래서 교육의 유연성을 해치는 정도의 것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최대

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실질적으로 주어진 물리적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요.

그 이후 내용의 중요도와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언제 어떠한 부분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 할 것인지를 배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일선 교사들에게 어떠한 지원 및 교육을 해야 하는지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일반 학교들이나 여타의 교육기관들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만들 때는 소위 “교육과정지도”(Curriculum Map)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교육할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과목들을 총론에서 각론, 또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 등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목적 및 방법들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일정표의 형태로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미 없는 형식적인 문서작업이 아니라 교육 실천에 있어서 매우 실질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역자들과 교육부 담당자들이 유의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까.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시18:1)

시18편은 “감사의 시”로서 삼하22장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기록 한 시로 지난날을 생각해볼 수 없이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돌아보며 감격해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말에도 “여호와와 종 다투는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머리말에서도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시를 지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돼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여호와와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보다 “여호와와 종”이라는 사실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소중한지요!

### 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시18:1)

다윗은 늘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머리말에 보면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다” 이 시는 사윗의 입장에 맞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양의 정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한가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찬양은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향한

것이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찬양하니까 그냥 옆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생생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보호하심을 받았으므로 오직 여호와께만 감사를 표시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데 1절이 전체 50절의 주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 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시18:1)

여기에서 “사랑”이란 말씀, 원어 “라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표현한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성경 다른 부분에는 없고 여기에서만 나오입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실 때 사용된 말인데 본 구절에서는 예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이 주어 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한 단어를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품성한 사랑을 받은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기도제목이 응답돼 감사하다는 차이를 훨씬 뛰어넘은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심령이 깊이 새겨지고 뿌리박힌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 깊은 곳에 녹아내려서 고백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 목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시18:1)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강국이라고 하듯이 개인적으로도 육체의 힘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걷는 것도 먹는 것도 보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력”이라고 합니다. 찬송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두 영적인 힘이 필요함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영적으로 건 강하고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고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이 갖는 상대적인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힘의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 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시18:1-2)

다윗은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배경도 없고 육체적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힘이 있다면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인의 삶은 땅에 있는 것을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와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모두 성도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하시는 명칭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한 사람에게 얻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 뿐이예요!

### 토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시18:3-5)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늘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아뢰리니, 영으로 다”라고 자신있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도 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와서 슬픈 경연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

이 다윗을 얽어매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두렵게 했습니다. 가장 용맹스럽던 다윗이었지만 불의한 자들이 강물이 불어서 넘쳐듯이 몰려오니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얽어매었던 모든 것이 풀려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앞에서 성전에서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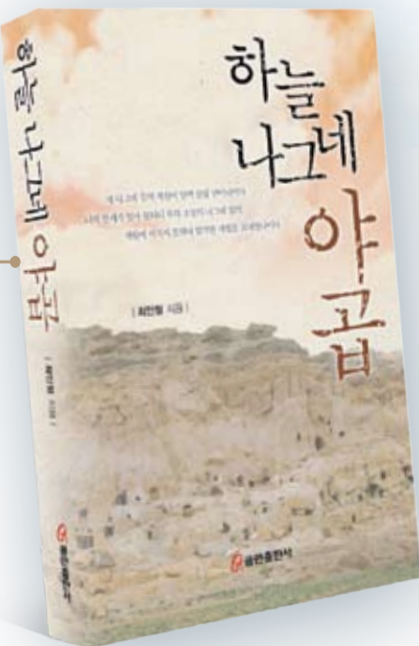
#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 마가 카페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드라마처럼 전개한 최초의 장편소설 의도를 찾아가는 일주일간의 기막힌 기록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의 발자취를 문학적 상상력과 영적 교훈으로 새롭게 써 내려간 책이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 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맺어지는 해피 스토리.  
한 잔의 커피를 마시듯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으며 그 맛은 원두커피의 그것처럼 예수의 귀중한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달콤하면서도 쓴 여운이 남는 그런 글입니다.

이순철 지음 / 368면 / 13,000원



### 하늘 나그네 야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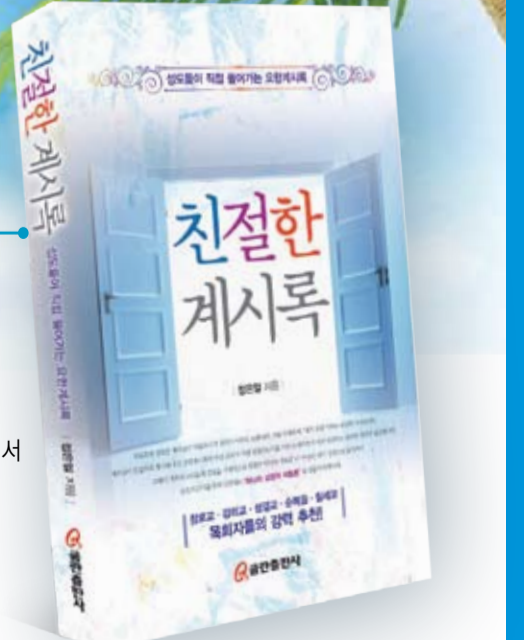
야곱은 주전 2006년에 태어나 147세를 살고 죽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저자는 야곱의 삶을 1인칭 야곱의 시점에서 이야기 식으로 풀어냈으며, 성경에 숨어 있는 행간의 뜻을 읽고 재미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당시 정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냈다. 각 장마다 몇달 정리를 통해 성경적 해석과 역사적 배경과 상식을 설명하고 있어서 깊은 이해를 더한다.

최인철 지음 / 496면 / 18,000원

### 친절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유혹이 난무하는 혼란한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건전한 요한계시록 읽기를 제안한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번쯤 풀어졌을 질문들을 목회자가 성도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서 혼자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은일 지음 / 360면 / 13,000원





# 크리시천 리더십

- 릭 워렌 목사의 역기스 (1)

- 번역 및 요약 -



최운용 목사

(감사한인교회 부목사)

[편집자주] 교회에서 필요한 리더를 교육할 때 참조해야 할 리더십의 핵심을 소개한다. 내용은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가 강의한 리더십 강의를 최운용 목사가 요약 번역한 것으로 수 회에 걸쳐 연재한다. 최운용 목사는 현재 감사한인교회 장년교육과 예배음악부서 담당하고 있으며 골든게이트침례신학원(목회학박사 및 신학석사, 기독교교육학석사)과 남침례신학원(교회음악학사)을 졸업했다. 현재 웨드미선대학과 골든게이트침례신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성경은 리더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잠언28:2에 보면 “지혜 있고 민첩한 리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강하고 오래 갑니다”라고 말한다. 지혜 있고 민첩한 리더는 좋은 리더를 말하는데 그런 리더가 있으면 두 가지 유익이 생기는데 첫째는 조직이 강해지고 둘째는 오래간다는 것이다. 잠언11:14에는 “지략(현명한 리더)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스니라”고 말한다. 이 두 구절을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체에 적용할 수 있다. 좋은 리더

나는 어떤 리더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나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좋은 리더인가?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주는 나쁜 리더인가? 하나님에 원하시는 리더가 되기 위한 6가지의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리더는 본(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살후3: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리

람을 믿어준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격려해준다. 그러나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리더는 사람을 믿지 못하며 일을 잘 맡기지 않고 혼자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잘 안해준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된다.

3. 리더십의 기초는 성품(인격)이지 카리스마가 아니다  
카리스마는 사람을 잡아끄는 독

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로 만드셨다.

5. 리더는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  
전10:10 “만일 도끼가 무디고 그 날이 날카롭지 못하면 할만 더 들 뿐이다. 그러나 기술은 성공을 가져온다.”  
모든 리더는 배우는 사람들이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에 그는 지도자가 되기를 멈추는 것이다. 리더는 언제나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열심히 일하기보다 지혜롭게 일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말하는데 열심히 일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리더가 되는 법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6. 리더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리더는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요10:27에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네”라고 말씀하셨다. 리더가 만약 혼자 걸어가도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는 리더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리더는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

리더를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몇 가지의 일들

- 1)사람들을 가지고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라.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리더를 따라가고 심지어 생명을 바쳐 충성한다.
- 2)사람들을 늘 격려하고 칭찬해 주라. 격려는 그야말로 영혼의 산소이다. 사람을 만나면 1분 안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격려, 칭찬을 해주는 습관을 만들어 보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 3)좋은 리더의 인격을 보여주라. 사람들은 직위보다는 리더의 인격을 보고 따른다. 추가로 능력까지 보여주면 더욱 좋다. 인격과 능력을 갖고 있는 리더는 신뢰감을 주며, 사람들은 신뢰성 있는 리더를 따라간다.
- 4)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라.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따른다.
- 5)형상 동기부여를 잘하라.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보여주고 잘한 일에 칭찬과 상을 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라. 사람들에게 열정을 집어넣어주는 리더가 되라  
성공적인 리더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잘 아는 리더이고 성공적인 리더는 사람을 남기는 리더이다. 일본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일의 업적보다 사람을 남기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이다.  
이메일: choiyu21@gmail.com  
최운용 목사

## 리더는 영향력 주는 사람, 본보이며 사랑해야 리더십 기초는 성품, 배우고 계속 발전시켜야

가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고 튼튼해지고 오래 가며 사업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많이 필요하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지속적인 평안과 안정은 바로 리더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리더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지만 공통적인 정의는 “리더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리더란 직분을 임명받아서 된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는 정확치 못한 전통적 개념의 정의였다. 직분을 받았다 해도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리더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리더라는 점이다. 우리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의 리더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 영향을 주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들은 상대방에게 이런 저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나는 리더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

리더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리더의 말이 아니라 리더의 행동을 바라보며 믿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만일 진정한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다음의 질문들을 늘 해야 한다. “나의 삶은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무슨 본이 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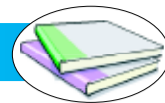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 -보스는 ‘요구’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 -보스는 권위로 명령하고 지시한다/리더는 모델을 보여줌으로 일한다. -보스는 두려움을 일으킨다/리더는 열정을 일으킨다. -보스는 ‘내가’라고 말한다/리더는 ‘우리가’라고 말한다. -보스는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리더는 실패를 고쳐준다. -보스는 무조건 성과를 내라고 요구한다/리더는 그 방법을 제시한다. -보스는 ‘내가 가라’고 말한다/리더는 ‘함께 갑시다’라고 말한다.

2. 리더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요일4:11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을 사랑하는 리더의 특징은 사람에게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리더는 사

한 매력이나 힘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리더들 가운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리더들도 참으로 많았다. 인격이 없는 카리스마는 오래가지 않으며 결국은 패망과 몰락을 가져오게 한다. (예: 미국 TV복음전도자 가운데 지미 스와거, 짐 베이커의 여자문제; 미국 대통령가운데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정관 여자관계 등)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과 신뢰감이다. 결국 리더십의 기본은 인격이지 카리스마가 아니다.

4.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만들어진다  
세상에 타고난 리더란 없고 모두 후천적으로 배우고 경험해서 리더가 된다. 단지 어떤 리더는 타고난 성품이나 자라나온 환경이 좋아서 좀 더 일찍 리더의 소질을 배웠을 뿐이다.  
빌립보서 4:9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한다. 리더는 배우고 듣고 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도 리더를 훈련시키는 일을 예수님은 우선순위로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학벌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예

### 책 소개



## “왜, 4/14 Window Movement인가?”

저자 414한국위원회 김항안 목사

“왜, 4/14 Window Movement인가?”가 최근 도서출판 글로리아에서 출간됐다. 414 Window Movement 한국위원회 김항안 목사(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가 쓴 이 책은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의 희망인 다음세대’를 4세-14세로 보고 전 세계에서 이



##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의 희망인 다음세대를 향한 선교전략

연령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에서 미디어와 세속의 유혹으로 무지한 어른들의 욕망에 의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제3세계의 4/14는 빈곤과 학대로 죽어가고 있다.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 시스템과 전략을 세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도록 필요한 전술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운동은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와 루이스 부시 목사가 2009년 시작했다. 그동안 중남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온 김남수 목사의 실천이 10/40윈도우 선교운동을 해오던 부시 목사와의 만남으로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이 전략은 성인크리스천의 85%가 이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통계에서 나온 것으로, 어린이 선교는 성인의 17배의 효과가 있다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 한다. 김항안 목사는 어린이 선교가 어른 선교보다 2000퍼센트의 효율성을 갖고 있지만 예나지나 시간 투입은 어른보다 훨씬 적은 것이 안타깝다며 이 세대를 복음화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강조하며 어린이들의 전이적인 변화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책은 프롤로그와 맨 끝에 에필로그를 담고, 제 1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안에 1장 세계의 어린이, 2장 한국교회의 위기, 3장 교회와 어린이, 4장 교회에 요구되는 전략, 제2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안에 5장 우리의 선교대상, 6장 4/14 Window Movement의 정립, 7장 어린이 동역자, 8장 4/14 Window가 없다면? 제3편 우리는 어떻게 미래로 가는가? 안에 9장 4/14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10장 4/14를 지속하라, 11장 4/14 회복을 위한 전술의 순서로 각 장마다 3-4 항목으로 나눠 썼다. 부록으로 4/14 Window 운동의 역사에 대해 11항 목표로 나눠 게재했다. 책 구입은 각 서점에서 할 수 있다.

(유영정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니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시천 신문사

도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7.7cm × 5.8cm		
전면 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도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탱 싱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시시오.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